<Episode.1 너가 처음이야>

S#1 뉴밀 / 복도 / 낮

수업을 끝낸 후,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는 학생들.
무리 지어서 정리하고 있는 동기들과 달리 준석은 혼자서 사물함 앞에 있다.

학생1 (놀리는 말투로) 야야 오늘은 진짜 안마시면 안 된다.
학생2 (장난스럽게 찡그리며) 너나 빼지마~

학생1,2는 짐을 챙기면서 얘기를 나눈다.

학생1 (폰을 보며) 어디 갈래? 서면?
학생2 (가방을 싸면서)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딴 데 갈래?
학생1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어때?
학생2 (1의 폰을 보고) 오~ 야 좋다 좋다.

학생1,2 이동하고 준석은 혼자 남는다. 준석 혼자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다.

준석(N) (가만히 아래를 보며) '아싸' 그것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그게 바로 나다.

준석, 정리하던 사물함을 닫는다.

[Intro 인사이드 아싸] - 사물함이 닫힘과 동시에 로고등장

S#2 뉴밀 / 4층 정원 / 낮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수와 영훈 뒤로 건물 밖으로 나오는 준석의 모습이 보인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준석의 얼굴 위로 드리운다. 준석, 손을 이마에 대어 햇빛을 가린다.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지만 준석에게는 따갑게만 느껴진다)

준석 (눈을 찡그리며 혼잣말로) ..빨리 집에나 가야지.
영훈 (준석을 가리키며) 아님, 쟤한테 물어봐

영훈과 현수의 시선을 의식한 준석은 발걸음을 옮긴다.
둘 옆을 지나가려 하자 현수가 눈치를 보다가 준석을 붙잡는다.

현수 아… 저기..!

준석, 걸음을 잠시 멈춘다.

준석　　(경직된 표정으로) 어… 저요..?
현수　　네, 그…. (머뭇거리다) 방영 20학번 맞으시죠..?
준석　　네….
현수　　말 놓아도 되지..?
준석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어? 어..

현수와 영훈은 서로 질문을 떠넘긴다.

영훈　　(oooo-)물어봐.
현수　　아, 니가 물어봐.
영훈　　니가 가잖아.
현수　　(한숨 쉬며) 저.. 이런 말 되게 뜬금없게 들릴 거 아는데… 혹시 나랑·· (머뭇거린다) 과팅 할 생각 있어..?!

준석의 눈은 동그래진다.

준석(N)　 응? 초면에?
현수　　원래 나랑 같이 가기로 했던 애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현수는 영훈에게 원망의 눈빛을 보낸다.
영훈은 현수에게 얄미운 미소를 짓는다.

현수　　(한숨을 쉬며) 혹시 지금 시간돼?
준석　　(놀라며) 지, 지금?
현수　　(살짝 못 미덥다는 표정으로) 어.. 되면 같이 갈래?

당황한 표정을 짓는 준석.
(선택)

(자막)일생일대의 기회, 과팅에 참여할까?

[1-A. 참여한다]
[1-B. 과팅은 무슨·· 오랜만의 종강인데 피곤하다. 그냥 집가서 게임한다.]

[1-B 선택] --> 엔딩
S#1　뉴밀 / 4층 정원 / 낮
준석, 골똘히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인다.

준석(N)　(허탈하다는 듯이 살짝 미소 지으며) 내가 무슨 과팅이냐.. 그냥 집가서 게임이나 하자.
준석　　(고개를 들고 현수를 본다) 미안, 집에 일이 있어서….

현수, '아··'하고 짧게 탄식하고는 영훈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본다.
영훈이 '뭐'하고 짧게 턱을 내밀어보인다.

현수　　집에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어색한 표정으로)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준석　　(약간 힘없는 목소리) 어·· 잘가~

현수와 준석이 어색하게 손 인사를 한다.
준석이 자리를 뜨면, 다시 현수와 영훈이 얘기를 한다.
준석, 가다가 멈춰 잠깐 멍한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다가 자리를 뜬다.

S#2　준석의 자취방 / 저녁

Insert
자취방 외부 모습.

#몽타주
준석, 자취방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키고 치킨을 주문한다. 게임을 하다가 배달이 도착한 후 맥주를 꺼낸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며 치맥을 즐기는 모습.

준석(N)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속 웃는다) 그래 과팅은 무슨··· 역시 안가길 잘했어

준석의 자조적인 웃음과 함께 페이드아웃.
- END '그냥 이대로'

[1-A 선택] --> Episode.2

<Episode.2 제목 미정>

S#1　뉴밀 / 4층 정원 / 낮

준석,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본다.

준석　　(머쓱한 듯이) ...그래!

현수, 준석의 대답을 듣고는 눈을 크게 뜬다. '진짜?'하고 되묻는다.
준석, 약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영훈이 소리 없이 입으로 '오···'하며 현수를 본다.

영훈　　그럼 나 가볼게.

영훈이 뒤돌아 살짝 달린다.

현수　　(영훈이 봤다가 다시 준석 보며) 그럼 우리도 갈까..?

준석　　(민망한 듯 웃으며) 어·· 어..

준석은 현수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두 사람, 서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걷는 뒷모습이 점점 멀어진다.
걷다가 눈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다가 딴 데를 본다.
이내 현수가 준석에게 말을 건다. 준석이 대답하면 다시 현수가 어색한 리액션을 보인다.

E(현수와 준석의 대화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S#2　술집 / 저녁

Insert
술집의 외관.

준석과 현수는 술집에 들어선 후 두리번거린다.
조금 멀리서 아라와 지혜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둘은 여학생 쪽으로 다가간다. 아라와 지혜도 둘을 의식하고 긴장한 표정 짓는다.

현수　　(몸을 살짝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아라　　(웃으며) 아, 안녕하세요!
지혜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준석도 인사에 답하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준석과 현수가 의자를 빼고 앞에 앉는다.

아라　　(두 손을 맞대며) 그럼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아라, 손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다.

아라　　(확인하듯 눈을 크게 뜬다) 이 순서대로?

아라 제외한 세 명 서로 눈치 보면서 '네'하고 짧게 대답한다.

아라　　(손끝을 자신 쪽으로 향하게) 아, 그럼 저부터 할게요. 저는.. 조아라라고 하고. 22살이에요.
지혜　　아·· 저는.. (시선 아라 쪽을 봤다가 다시 제자리로) 윤지혜라고 하고요. 21살입니다.
현수　　(두리번거리며) 다음 저·· 인가요..? 네, 저는 박현수고요. 저도 (지혜 쪽을 가리키는) 21살입니다.

다같이 작게 박수치며 호응을 한다. 마지막 순서인 준석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준석　　저는 구준석이라고 하고. 저도·· 네, 21살입니다.

준석을 제외한 세 명 호응하는 소리 후, 잠깐 침묵이 흐른다.

아라　　아, 그럼 혹시 과는 다 어디세요..?
현수　　(손으로 준석과 자신을 가리킨다) 저희 둘은 방영과예요.

여학생 둘의 호응하는 소리.

아라　　저랑 지혜는 (지혜 쳐다보며) 간호학과거든요.
지혜　　(아라를 보며 고래를 끄덕인다) 네.
현수　　아, 간호과예요? 실습 되게 많겠다.
아라　　(인상 찌푸리며) 아! 맞아요..
지혜　　근데 방영과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준석과 현수 서로 쳐다보며 한숨 쉰다.

현수　　(헛웃음) 진짜 죽을 거 같아요..

지혜의 질문이후로 점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다.
방영과 얘기부터, 어떤 교양을 듣는지 하는 식의 주제가 오고간다.

Insert(O.L)
시계 돌아가는 장면.

준석 일행 외에 다른 사람들도 앉아있다. 실내조명은 더 어두워지고 상에는 술병이 늘어져있다.
학생들은 아까보다 더 커진 목소리로 웃고 떠들며 술 게임을 한다.

지혜　　눈치게임1!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머지 세 명 서로 눈치를 보며 1-2초가량 멈춰 있다.

아라　　2! (자리에서 일어난다)

현수와 준석, '3' 을 크게 외치며 동시에 일어난다. 서로 눈이 마주치며 탄식한다.

아라　　어! 두 사람!! (호응을 유도하며 박수를 친다) 러~브~샷! 러~브~샷!

준석과 현수가 고개를 반대방향으로 돌리며 싫은 티를 낸다.
둘은 눈을 질끈 감고 러브샷을 한다. 아라와 지혜가 둘을 바라보고 웃으며 호응한다.

#몽타주
준석과 현수가 자리에 앉으면, 아라가 다른 게임을 주도한다.
준석이 또 벌칙 걸리고 나머지 큰 목소리로 호응한다. 준석의 기분 좋은 표정.

S#3 술집 / 밤

아라와 지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가 볼게~'한다.
현수, 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다가 둘에게 호응한다.
아라와 지혜는 서로 팔짱을 끼고 준석과 현수를 향해 인사한다.

아라 (손을 크게 흔들며) 안녕~!
지혜 잘가~
현수 (통화를 하다가 지혜와 아라 쪽 보고 손을 흔든다)
준석 (아라와 지혜를 향해 손 인사)

아라와 지혜는 비틀거리며 떠난다. 아라가 좀 더 지혜를 지탱해주며 걷고 있다.
준석은 고개를 돌려 현수를 본다.
현수는 약간 취기가 도는 목소리로 영훈과 통화를 하고 있다.

현수 근처라고? 야, 그럼 와.
준석 (현수에게) 그·· 나 이만 가볼…
현수 (손으로 준석을 앞을 막으며) 잠깐만, 잠깐만.

준석, 뒷목을 쓸어내리며 옆으로 시선을 돌린다.

현수(E) 지금 그 준석이도 있거든? (통화에 대답하며) 어. 어, 그니까 와~

준석, 현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현수를 본다.

준석(N) (당황한 표정) 뭐.. 뭐지?

현수 잠만. (폰 잠깐 내리고 준석을 보며) 준석아, 니도 더 마실거지.
준석 어, 어..?
현수 영훈이라고, 내 친구랑 마실 건데·· 괜찮지?
준석 (당황한다)
영훈(E) 니 어디에 있는데?
현수 (다시 폰을 귀에 대고) 여기가 어… (술집을 둘러본다)
현수(E) 00술집이라고, 00사거리 근처에 있는 데. 어어, 거기 거기.

현수는 영훈과 통화를 계속한다.
준석은 고민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선택)

(자막)현수와 영훈이와 한잔할까?

[2-A. 내 자취방에서 한잔하고 가라고 한다.]
[2-B. 다음을 기약한다.]

[2-B 선택] --> 중도엔딩

S#1 술집 / 밤

준석(N)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기 끼냐..

준석, 자신감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현수를 본다.

준석 내가 그… (눈알을 위로 굴렸다가 다시 정면 보며) 집 가서 강아지 밥 챙겨줘야 하거든.. 그래서 가야할 것 같아. 미안….
준석(N) (눈썹을 찌푸리며 괴로운 표정) 하.. 씨, 망했다….

현수가 통화를 하다가 준석을 본다.
폰을 잠깐 귀에서 떼는 현수.

현수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어… 그래…. 강아지 밥… (살짝 헛웃음) 중요하지….
준석 다음엔 꼭 갈게..! (자리에서 일어난다)
현수 그래그래. (준석을 향해 손 인사) 집 조심히 들어가~!

준석, 뻘쭘하게 '안녕'하고 손 인사를 하며 떠난다.
준석이 없어진 후의 테이블에는 현수 혼자 남아있다. 다시 폰을 들어 통화를 하는 현수.

S#2 준석의 자취방 / 현관 / 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준석이 들어온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힌다.
준석은 현관에서 잠깐 생각에 잠긴다. 이내 등을 대고 있던 문을 쓸어내려오며 쪼그려 앉는다.
준석은 괴로운 듯이 손으로 머리카락을 털고 탄식한다.
손을 바닥에 대는데 이때, 내팽겨져 있던 강아지 인형의 전원 버튼이 눌린다.

강아지인형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강아지 인형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준석에게로 다가온다.

준석 아악!! 진짜.. (강아지 인형 전원 버튼을 끈다)

한숨을 푹 쉰 후 진정한 표정.

구부려진 무릎 위로 뻗은 손에는 강아지 인형이 들려있다.

준석(N)　그래, 어차피 갔어도 갑분싸 메이커만 됐을 거야. 안가는 게 맞았어..

인형을 손에 쥐고 현관 앞에 씁쓸하게 쪼그려 앉아있는 준석의 모습.

[2-A 선택] --> Episode.3

<Episode.3 제목 미정>

S#1　술집 / 밤

준석이 고민하다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번쩍 뜬다.

준석　　아, 그럼 내 자취방에서 먹을래?
준석(N)　내가 드디어 미쳤나.

준석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의 현수.

현수　　어..? (휘둥그레지며) 괜찮아??
준석(N)　설마 오겠어...
준석　　어, 어.. 괜찮아.
현수　　헐, 잠시만. (영훈이와 통화) 준석이가 자기 자취방에서 먹자는데?
영훈(E)　진짜 가도 돼?
준석(N)　오.. 오지마..!
현수　　(준석을 보며) 어. (다시 시선 원래대로) 문자로 주소 찍어줄게.

현수, 영훈의 대답 들은 후 통화를 종료한다.

현수　　(준석에게 폰을 내밀며) 준석아 주소 좀 알려줘.

테이블에는 현수와 준석 둘만 남아있다.
준석이 주소를 불러주면, 현수가 타자를 치는 모습

S#2　준석의 자취방 / 밤

Insert
자취방 외벽. 준석의 방이 불이 켜져 있다.

이미 준석의 자취방은 술과 안주들로 늘어져 있다.
영훈, 준석, 현수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셋이서 술잔을 부딪친다. 술을 들이 킨 후, 저마다 '캬~'하고 내뱉는다.

영훈　　(술잔을 내려놓고 준석을 보며) 근데 우리 오늘 처음 봤는데, 집까지 오고 술도 마시네.
현수　　(영훈을 본다) 집들이 선물 사왔어야 했나?
준석　　(과자봉지를 들고 흔든다) 안주로 퉁치지 뭐.

셋이서 가벼운 웃음.

현수　　(자취방을 둘러보며) 아, 나도 자취하고 싶다.. (준석을 본다) 어때?
준석　　(단호한 표정) 절대 하지마.
현수　　왜왜?
준석　　엄마 없으니까 힘들어..
영훈　　(풉 하고 비웃는다) 마마보이야?

준석이 고개를 내저으며 웃는다.
현수, 방을 둘러보다 방바닥에서 강아지 인형을 발견한다.

현수　　(강아지 인형 집으며) 오, 강아지 인형 뭐야. 왜 있어?
준석　　그냥 반려 인형.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현수　　(무미건조한 반응) 오….
영훈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아니, 진짜 쓸데없다.

영훈, 현수의 손에서 강아지 인형을 빼앗아 들어 요리조리 둘러본다.

영훈　　이거 근데 어떻게 키는 거야?
준석　　줘 봐봐.

준석이 인형 전원을 키자 강아지 인형이 활발하게 돌아다닌다.
셋이 옹기종기 모여 강아지 인형을 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

준석(N)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들은 처음이다.

S#3　뉴밀 / 4층 정원 / 낮

준석과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다가온다.
이때, 영훈 걸음을 멈춰서며 말을 건다.

영훈　　(히죽 웃는다) 야 오늘 강의 짤래?
준석　　와 통했다. (영훈과 서로 주먹을 친다)
현수　　(걱정스러운 표정) 니네 출석 괜찮냐..?
준석　　그럼 너는 수업 들어라~

영훈과 준석이 뒤돌아서 달린다. 현수, 한숨 쉬면서 '아, 같이 가!'하고는 둘을 따라간다.
밝은 음악이 흘러나온다.

준석(N)　드디어 평범한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걸까.

S#4　뉴밀 / 강의실 안 / 낮

오른쪽 하단에 '2주 뒤'라는 자막이 뜬다.
앞에는 현수와 영훈이 같이 편한 자세로 앉아있다.
그 뒷좌석에는 준석이 교재를 준비하는 모습.

현수　　(몸을 뒤로 젖히며) 아, 진짜 놀러가고 싶다.
영훈　　(앞을 보며 멍 때린다) 배고프고 지친다.

준석은 가방정리하고 있고 현수, 영훈은 폰을 들어 보고 있다.
현수, 폰을 보다가 콧방귀 끼며 웃는다.

현수　　야, 니는 회피형 인간? 어떤 거 같아.
영훈　　그게 뭔데.
현수　　(폰을 보면서) 막 대화하려해도 피하고, 도망가고, 인간관계가 불안정하면 갑작스레 연락을 끊는다?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가방 지퍼를 잠구던 준석의 손이 멈칫한다.

영훈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굳이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야. 피곤한 사람이다.
현수　　(웃는다) 맞지.

현수와 영훈은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준석, 굳은 표정으로 둘의 뒷모습을 본다. 둘의 뒷모습이 일렁인다.

#준석의 망상
웃던 현수와 영훈이 뒤돌아보며 무서운 표정으로 "회피형 인간?", "피곤한 사람이다.", "굳이?"라고 말하며 비웃는다.

영훈(E)　(희미한 소리) 준석아… 구준석...!

일렁이던 뒷모습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현수와 영훈은 준석을 보고 있다.
멍한 준석의 표정.

영훈　　점심 뭐 먹고 싶냐고.

준석　　(굳어있는 표정) 아, 아무거나.

영훈과 현수가 다시 앞을 보며 다시 대화를 나눈다.

준석(N)　그날부터였을까?

S#5　뉴밀 / 복도 / 낮

영훈과 현수가 사물함 근처에 서있다.
현수는 폰을 들고 준석에게 문자 보내는 중. 영훈은 현수의 폰을 같이 보고 있다.
이때, 준석이가 사물함을 닫는 모습 보인다.

준석(N)　나는 영훈이와 현수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현수가 준석을 부르지만 준석은 모른척하며 떠난다.

현수　　(영훈에게) 쟤 요즘 왜 저러는 거야?
영훈　　(어깨를 으쓱거린다)

S#6　뉴밀 / 3층 복도 / 낮

3층 복도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현수와 영훈.
준석은 계단을 내려가려다 둘과 눈이 마주친다.

flash back
현수　　야, 니는 회피형 인간? 어떤 거 같아.
영훈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굳이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야. 피곤한 사람이다.

현수와 영훈이 웃는 모습.

준석, 둘을 무시하고 계단을 내려간다.

준석(N)　'회피형 인간'은 나를 뜻하는 말이었다.

현수의 기가 차다는 표정.

준석(N)　친구들에게 내 속내를 들킨 거 같아서 두려웠다.

S#7　뉴밀 / 4층 정원 / 낮

오른쪽 하단에 '1개월 후'라는 자막이 뜬다.

뉴밀 4층 입구로 향하는 준석. 반대편에서는 현수와 영훈이가 오고 있다.
준석은 발걸음을 빨리 옮기려하지만, 현수가 준석을 멈춰 세운다.

현수　　(준석 어깨 위에 손을 올린다) 구준석..!
준석　　(현수를 본다)
현수　　(손 내리고 미소 지으며) 오랜만이다.

잠깐 동안 정적이 흐른다.

준석　　어… 나도.
준석(N)　친하게 지낸 건 겨우 2주, 어색한 사이가 된지는 한 달이 지났다.
영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
준석(N)　그런데도 둘은, 여전했다.
준석　　요즘·· 바빴어. (눈을 내리깐다)
현수　　암튼 오랜만이니까, 한잔 해야지. (씨익 웃는다)
영훈　　우리 셋, 거의 한달 못 만난 듯.
현수　　어때, 갈래?
준석(N)　그때와 같이 날 편하게 대해준다.
(선택)

(자막)친구들이 한잔 할 거냐고 물어본다. 어떻게 할까?

[ED1. 한잔한다]
[ED2. 거절한다]

[ED1. 선택] --> 굿엔딩
<ED1 제목 미정>

S#1　뉴밀 / 4층 정원 / 낮
생각에 잠긴 표정의 준석.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운을 뗀다.

준석　　좋지.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마시네.

현수와 영훈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준석을 본다.

현수　　어·· 야,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폰을 들어 보인다)
준석　　어, 그래.. 나중에 보자..!

얼떨떨한 표정의 준석이 4층 입구로 들어간다.

현수도 머리를 긁적이며 영훈과 같이 4층 정원을 빠져나간다.

S#2 술집 / 저녁

‘딸랑’소리와 함께 술집 문이 열린다.
화면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거리는 준석의 모습.

현수 (준석을 발견하고 손을 든다) 준석아!
준석 어, 어. (술집에 들어서며 멋쩍은 웃음)

준석, 현수와 영훈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의자를 빼고 앉는다.

영훈 (손을 들고 종업원 쪽을 본다) 저희 주문할게요..!

CUT TO
상 위의 술병과 안주들. 세 명이서 대화하는 모습.

현수 아니, 그래서 그 분이 먼저 연락오길래. 난 잘 된 건줄 알았거든?
영훈 (비웃는다) 잘되긴 개뿔.
준석 니는 착각이 너무 심함.

준석과 영훈이 크게 웃고, 현수는 ‘아니…’하며 말끝을 흐린다.

준석(N)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현수가 한숨 쉬며 짜증낸다. 영훈이 장난 섞인 위로를 건넨다.

준석(N) 회피하지 않는 것. 마주하는 것.
현수 아, 됐고. 그냥 짠 하자.
영훈 다 술잔이 비었네.

영훈이 술을 따른다.

준석(N) 그동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 왔던 걸까.

현수가 먼저 ‘짠’을 외치며 술잔을 든다.
다같이 술잔을 부딪치며 ‘짠’하고 외친다. 밝은 표정의 준석.

준석(N) 이제 더 이상은 혼자 겁먹고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함께 웃는 모습과 함께 F.O

[ED2. 선택] --> 배드 엔딩

<END2 제목 미정>

S#1 뉴밀 / 4층 정원 / 낮

준석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약속을 거절한다.

준석 미안…. 나 오늘까지 과제 마감인 게 있어서..
현수 아. (잠깐 멈칫하며) 그럼 어쩔 수 없지~
준석 (눈썹을 찌푸린다) 미안하다. 다음엔 꼭 갈게.

현수와 영훈이 민망한 듯이 웃는다.

영훈 그래, 다음에 보자!

현수와 영훈이 준석에게 손을 흔들고 먼저 떠난다.
준석도 둘을 향해 인사하고 천천히 4층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간다.

S#2 뉴밀 / 강의실 안 / 낮

Insert
강의실 문 앞. 교수님이 학생들의 출석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출석부를 보고 있는 교수의 뒷모습.
이름을 부르면, 학생들이 '네'하고 대답한다.

교수님 구준석. (대답을 기다리다가) 구준석 학생 없나요?
학생1 (주위를 둘러본다) 쟤가 그 걘가?
학생2 (어깨를 으쓱거린다)
학생1 왜 안 나왔대?
학생2 듣기로는 휴학했다는데.

E(교수님이 계속 출석을 부르는 소리)
강의실 한구석에 반자리 하나. 계속 줌인하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